



<Mr. Douglas Johnson>



<Mr. Jamie Hubbard>

## 2015 익산 FCI 국제 도그쇼 JUDGE'S EYE

더글라스 존슨 심사위원은 2011년 가을 리트리버 스페셜티쇼 심사 후 4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으며, 제이미 허버드 심사위원은 2007년 5월 도그쇼 심사 후 무려 8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였다. 진행 : KKF 국제팀 김현정 과장

두 분 다 꽤 오랜 만에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다시 한국을 방문한 소감은 어떠신지요?

**더글라스 존슨** : 먼저 다시 한국에 와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된 도그쇼를 볼 수 있어 정말 기뻐했습니다. 저를 다시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이미 허버드** : 저 또한 정말 오랜 만에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이번에는 서울이 아닌 다른 도시를 여행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특히 도그쇼 운영은 8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최고였습니다. 이런 훌륭한 도그쇼를 만들어 낸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각 각 심사하신 견종은 어떻게 평가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더글라스 존슨** : 저는 스포팅, 토이, 하운드 그룹을 심사하였는데, 이 중 특히 토이 그룹이 인상 깊었습니다. 말티즈의 올바른 사이즈와 높은 퀄리티가 가장 마음에 들었으며, 토이 푸들 또한 수준이 높았습니다. 제 브리딩 견종인 아메리칸 코커 스파니엘 또한 컨디션 및 퀄리티가 아주 좋았습니다.

**제이미 허버드** :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견종은 라브라도 리트리버였습니다. 베스트 오브 브리드 및 베스트 오브 아퍼짓 섹스로 선정된 두 라브라도 모두 정말 놀라운 퀄리티를 자랑하였습니다. 베이비 또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골든 리트리버 중에서 특히 머리가 아름답고 과도하지 않은 올바른 피모를 지닌 리트리버를 베스트 오브 브리드로 선정하였습니다. 아메리칸 코커 스파니엘 또한 암수 위너는 전체적인 몸통 모양, 올바른 톱 라인과 꼬리의 위치가 인상 깊었습니다.

더글라스 존슨 심사위원님께서는 KKF 챔피언십 도그쇼 베스트 인 쇼 심사를 맡으셨는데, 심사평 부탁드립니다.

**더글라스 존슨 :** 베스트 인 쇼 심사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베스트 인 쇼 링 안에서 있었던 개들 모두 미국에 가면 쉽게 챔피언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퍼피 베스트 인 쇼로 선정한 도베르만은 라인이 정말 강했고 골격 또한 올바른 형태였습니다. 또한 강한 톱 라인과 아름다운 머리가 더욱 돋보이더군요.

제가 베스트 인 쇼로 선정한 토이 푸들은 스포츠 정신과 쇼맨십이 무엇인지 보여 주는 놀라운 개였습니다. 또한 완벽하게 미용된 상태로 링 안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토이 푸들이 이 정도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푸들은 아름다운 외모 뿐 아니라 완벽하게 올바른 다리 등 최상의 상태를 선보였습니다.

**심사위원들께 항상 묻는 질문인데, 심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더글라스 존슨 :** 저는 심사할 때 그 어떤 것보다 이 개가 올바른 타입인지 유념해서 봅니다. 각 견종을 정의하는 요소가 바로 타입이기 때문이지요. 다음은 몸뿐 아니라 정신까지의 건강함을 봅니다. 견종의 기질 또한 특히 도그쇼에 출전하는 경우 아주 중요합니다. 도그쇼에 기질이 나쁜 개가 출전할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타입, 건강함, 기질, 이 세 가지 모두 갖추어져 있을 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이미 허버드 :** 저는 심사위원이라는 직업은 결국은 좋은 브리딩을 위해 평가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링에 들어온 개들 중 어떤 개를 가장 먼저 브리딩할 것인가 평가합니다. 당연히 그 견종의 특질을 지녔으며 균형 또한 중요하지요. 종종 아주 좋은 개들에게도 단점을 발견할 수 있으나, 제 기준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견종을 대표할 수 있다면 그 단점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글라스 존슨, 제이미 허버드 :**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은 항상 방문하고 싶은 나라니까요. - 끝 -



**더글러스 존슨(미국)**  
Mr. Douglas Johnson

더글라스 존슨 심사위원은 부모님이 생일 선물로 안겨준 클럼버 스파니엘과의 만남이 애견계에 헌신하게 이끌었다. ‘Clussexx’ 견사호 아래 150마리가 넘는 클럼버 스파니엘, 서섹스 스파니엘, 웰시 스프링거 스파니엘, 잉글리시 토이 스파니엘과 페키니즈 챔피언견을 만들어 냈다. 또한 그가 브리딩한 견은 130회가 넘는 베스트 인 쇼 및 12번의 내셔널 스페셜티쇼 BISS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도그쇼에서 클럼버 스파니엘과 서섹스 스파니엘로 각각 베스트 인 쇼를 차지하였는데, 다른 견종으로 베스트 인 쇼를 차지한 유일한 브리더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에 AKC로부터 올해의 스포팅 브리더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AKC 심사위원으로 웨스트민스터 도그쇼를 비롯한 미국 전역의 도그쇼 뿐 아니라 FCI 월드 도그쇼 등 전세계의 수많은 도그쇼에서 활발한 심사를 계속하고 있다.



**제이미 허버드(미국)**  
Mr. Jamie Hubbard

호주에서 태어난 제이미 허버드 심사위원은 바셋 하운드와 닥스헌트 브리더였던 부모님을 도우며 어린 시절부터 도그쇼에 출전하기 시작했다. 아메리칸 코커 스파니엘을 브리딩하기 시작하여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미국 등의 국가에서 수많은 챔피언을 배출해 냈다. 또한 잉글리시 세터를 브리딩하여 멜버른과 시드니 로열 쇼의 베스트 인 쇼를 비롯한 수많은 상력을 획득했을 뿐 아니라 호주에서 3년간 전견종 탑 랭킹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미국에서 거주하며 더글라스 존슨과 함께 ‘Clussexx’ 견사호 아래 스파니엘 견종을 브리딩하여 명성을 떨치고 있다.

AKC 심사위원으로 아메리칸 코커 내셔널 스페셜티 쇼 및 웨스트민스터 도그쇼를 비롯한 미국 전역의 도그쇼 뿐 아니라 전세계의 도그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블루밍턴 인디애나 캔넬클럽의 이사로 재임 중이다.